

# “앨범 10점 만점에 10점, 사랑받고파”

### 뉴이스트, 데뷔 5년차 맞아

“저희를 모르는 많은 분께도 앨범을 들려 드리고 싶어요.”(JR), “팬 아니라 더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렌)  
 대중이 자신들을 모를 거라는 것을 전제로 갖 데뷔한 신인 같은 목표를 말하는 그룹 ‘뉴이스트(NU'EST)’는 2012년 데뷔해 벌써 햇수로 5년차를 맞은 중견 아이돌 그룹이다.  
 그동안 잦은 해외 활동에 비해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터다.  
 “저희 다섯 명이 같이 너무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했고요. 정말 잘 되면 좋겠습니다.”(백호), “이번 앨범에 저희 힘을 전부 쏟아 붓자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왔습니다.”(JR)  
 29일 발표한 다섯 번째 미니앨범 ‘캔버스(CANVAS)’는 지난 2월 1년6개월 만에 다시 태어난 뉴이스트의 모습을 선보인 앨범 ‘큐 이스(Q is)’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발표하는 앨범이다.  
 지난 타이틀 곡 ‘여왕의 기사’에서 보여준 판타지적인 모습으로 얻은 ‘카툰돌’이라는 수식어를 이어받을 만한 콘셉트와 비주얼로 무장하고 돌아왔다.  
 타이틀 곡 ‘러브 페인트(Love Paint)’는 퓨쳐베이스와 R&B를 기반으로 클래식한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가미해 뉴이스트만의 세련됨을 극대화한 곡이다.  
 멤버 전부가 작사에 참여해 뉴이스트의 색을 진하게 표현했다.



지난 29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그룹 뉴이스트가 5번째 미니앨범 ‘CANVAS(캔버스)’의 타이틀곡 ‘Love Paint(러브 페인트, Every Afternoon)’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캔버스’라는 제목처럼 빈 사람을 색칠하는 콘셉트로 만든 퍼포먼스도 돋보인다. 도입부에서 손으로 각자의 탄생석을 꺼내들며 뉴이스트의 재탄생을 의미하는 안무, 손가락 키스와 두 손을 연결해 섬세한 동작을 살린 안무 등이 포인트다.  
 앨범에 실린 다섯 곡은 아침, 오후, 저녁, 밤, 새벽 등 하루 24시간을 쪼개 표현했다.  
 민현과 JR의 듀엣곡이자 새벽감을 표

현한 ‘데이브레이크(Daybreak)’, 새소리 등으로 아침을 표현한 ‘R.L.T.L.’, 오후의 여유를 담은 타이틀 곡 ‘러브 페인트’, 민현의 첫 자작곡으로 저녁에 들으면 좋을 ‘땀큐(Thank You)’, 활기찬 밤의 모습을 담은 ‘룩(Look)’ 등이다.  
 “저희끼리 대화를 많이 하면서 노래를 만들었고, 트랙리스트도 구성했어요. 각 시간대 별로 듣기 좋은 노래를 골랐습니다. 저희의 솔직한 모습과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담아내고 싶었어요.”(백호)

앨범 전반에 직접 참여한 만큼 멤버들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10점”이다.  
 “작업하고 나왔는데 아침 해가 떠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이번 앨범을 계기로 지금보다 더욱 끈끈한 팀이 됐으면 해요.”(렌),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져있는 앨범이에요. 저희를 아는 분 뿐 아니라 모르는 분들도 저희 음악을 듣고 이렇게 꼭 차 있는 감정을 함께 느끼면 좋겠다는 게 목표입니다.”(민현)  
 /김민근 기자

###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자원봉사자 모집이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된다.  
 모집분야는 등록, 안내언어, 홍보, 교통수송, 경기, 운영지원, 의무 등 7개 분야 18개 직종으로 총 500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자원봉사 신청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회조직위원회 자원봉사홈페이지(<http://2017tkdvol.or.kr>) 또는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http://www.tbvol.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 전북현대 유소년팀, 프랑스 리옹 연수

전북현대포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의 유소년 팀이 구단의 백년대계를 위해 프랑스 리옹 연수를 떠났다.  
 전북은 U-12 신용주 감독과 U-15(김산중) 선수 3명, U-18(영생고) 선수 3명을 유학팀으로 선발해 오는 9월 프랑스 리옹행 비행기에 태우기로 했다.  
 이들은 ‘올림픽 리옹 유소년 센터’에 5주간 머물며 유럽의 선진 축구를 익힐 예정이다.  
 연수에 참여하는 신용주 감독은 “전북이라는 팀이기에 가능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좋은 기회가 헛되지 않도록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와 우리 전북이 유소년 육성을 선도하는 클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 축구대표팀,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도전’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가 팬들 앞에서 첫 소집 훈련을 가졌다.  
 울리 슈틸리케(62·독일)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오는 9월1일(중국·홍콩)과 5일(시리아·원정)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1~2차전 경기를 앞두고 2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 소집됐다.  
 1986 멕시코월드컵부터 2014 브라질월드컵까지 빠짐없이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한국은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린다.  
 12개 팀이 출전하는 최종예선은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 진행된다.  
 6개 팀이 한 조를 이뤄 각 조 상위 2위까지 월드컵 본선에 직행한다.  
 조 3위는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한다.  
 한국은 이란, 우즈베키스탄, 중국, 카타르, 시리아와 A조에 속했다.

### 슈틸리케호, 팬들 앞에서 첫 소집 훈련

한국의 첫 상대는 중국이다.  
 대표팀은 사흘 동안 서울월드컵경기장과 경기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담금질을 갖고, 다음달 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중국과 붙는다.  
 중국과의 역대 전적에선 17승12무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슈틸리케호 역시 지난해 8월 201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동아시아컵에서 중국을 2-0으로 잡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한국(48위)보다 30계단 밑인 78위다.  
 손흥민은 취재진과 만나 “첫 경기는 홈에서 열리는 경기”라며 “월드컵으로 가는 첫 경기이기 때문에 홈의 이점을 살려 좋은 경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많은 팬들이 응원을 올 것이라는 예기와 관련, “많은 팬들께서 오셔서 한국 축구가 중국 축구보다 여러 가지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며 “우리는 축구에만 집중하겠다. 팬들의 응원이 필요하고, 중국 팬들과 함께 싸워주셨으면 좋겠다”고 더했다.  
 중국과의 첫 경기가 끝나면 하루 휴식을 취하고, 9월3일 마카오로 출국해 시리아와의 2차전을 준비한다.  
 내전으로 보급을 앓고 있는 시리아는 국내에서 경기를 개최할 수 없어 중립국에서 홈경기를 치른다.  
 당초 레바논에서 경기를 하기로 했지만 안전과 경기장 시설 등의 문제 탓에 마카오로 변경됐다.  
 시리아는 FIFA 랭킹 105위에 불과하

지만, 2차 예선에서 6승2패를 기록하는 등 최근 상승세다.  
 슈틸리케 감독은 최종예선에 대해 “월드컵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쉬운 상대는 없을 것이다. 모든 팀이 월드컵에 가려고 할 것이다”며 “중국도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을 3계단이나 끌어올려 쉽게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은 ‘오픈 트레이닝데이’로 팬들에게 슈틸리케호의 첫 소집 훈련 현장을 공개했다.  
 팬들은 선수들의 슈팅, 몸동작 하나하나에 반응하며 성원을 보냈다.  
 손흥민은 “이런 행사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축구선수로서 이런 자리가 선수, 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집 때마다 1~2회씩 꼭 해서 팬들과 우리에게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통합전북빙상협회 초대 회장에 박숙영 선출

전라북도빙상협회의 초대 회장에 박숙영(사진)(주식회사 키넥코리아대표)가 선출됐다.  
 박숙영 회장은 통합 전라북도빙상연맹의 전무이사를 역임하며 도내의 동계스포츠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왔다.  
 박숙영 회장은 “전문체육의 빙상경기 연맹과 생활체육의 빙상연합회가 통합된 이후 초대 회장으로서 전라북도 빙상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력 향상과 빙상 종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세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